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제4회 이사회

2009년도 제4회 이사회가 지난 4월 8일 오후 4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명예이사 및 홍보대사 위촉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친환경건축 설계 아카데미 설립 운영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전북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의 건, 추대회원 추가 추대의 건, 비상근 부회장 선임의 건, 2009년도 위원회 조정·신설 및 위원장·담당임원 선임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명예이사 및 홍보대사 위촉의 건
 - 기존의 명예이사에 대한 재위촉 여부는 회장에게 위임하되, 추가 시에는 이사회에 상정 의결하기로 함.
 - ▷ 현행대로 임기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도 위촉
 - 홍보대사는 당분간 위촉하지 않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협의하기로 함.
- 제2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회장단에 위임함.
- 제3호 : 친환경건축 설계 아카데미 설립 운영의 건
 - 원안대로 운영키로 하고, 우리 협회측은 영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부의안건

- 제1호 : 제1호의안 : 전북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의 건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 회원 128명을 제명하고, 해당 미납회비 135,441,000원을 결손처분함.(본협회 회비 미납 : 127명, 경남건축사회 회비 미납 : 1명)
- 제3호의안 : 추대회원 추가 추대의 건
 - 추대회원 대상자 2명을 추가로 추대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비상근 부회장 선임의 건
 - 강성익, 김영수 이사를 비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함.
- 제5호의안 : 2009년도 위원회 조정·신설 및 위원장·담당임원 선임의 건
 - 추가 설치(안)중 홍보위원회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위원회별 담당이사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기로 함.
 - ▷ 법제위원회 : 조종기 이사
 - ▷ 문화홍보위원회 : 장현숙 이사
 - ▷ 신문편집위원회 및 건축사지 편찬위원회 : 장양순 이사
 - ▷ 회원교류위원회 : 김상부 이사

▲기타사항

- 총회에서 승인된 골프회원권 구매에 대하여는 이창섭 부회장, 강성익 부회장, 장양순 이사가 검토하도록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3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 회의

제3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4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허용요구 관련 대안에 관한 건과 건축단체통합 협의서 변경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회사항

- 제1호 : 건설업체의 설계검입 허용요구 관련 대안에 관한 건
 - 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변경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함.
 - 구조기술사가 주장하는 설계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단체통합합의서 변경에 관한 건
 -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बाट쿠약 아시아건축사협회의 부회장 방한 간담회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0일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 Zone C 활동방향 협의

차 방한한 바트잡 바트쿠약(Batjav Batkhuyag) ARCASIA 부회장을 협회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 몽골건축사협회 회장이기도 한 바트쿠약 ARCASIA 부회장은 ARCASIA Zone C를 담당하고 있으며, Zone C는 한국, 중국(홍콩), 일본, 마카오, 몽골로 구성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철호, 한명수 고문, 류춘수 직전부회장, 신춘규 이사, 정재욱 국제위원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바트쿠약 ARCASIA 부회장은 몽골건축사협회장 자격으로 오는 8월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될 ARCASIA Forum 15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하고, 우리 협회 회장 및 고문들에게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 Zone C 담당 부회장 방한 간담회 전경



바트잡 바트쿠약 몽골회장(왼쪽)과 회장중인 최영집 회장

최영집 회장, ACE, AIA 총회 초청 참석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은 유하니 카타이넨(Juhani Katainen) 유럽건축사협의회(Architects' Council of Europe, 약칭 ACE) 회장의 초청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ACE의 2009년 상반기 총회에 정재욱 본 협회 국제위원장과 함께 참가했다. 이 행사에는 우리 협회 뿐 아니라 세계건축사연맹(UIA), 미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CARB), 캐나다건축사협회(RAIC), 멕시코건축사협회(FCARM) 등 ACE와 교류협력관계에 있는 해외건축단체의 장들도 초청돼, ACE 이사회와의 공동세션 및 건축서비스교역에 관한 특별세션에 참석해 의견과 정보를 교환했다.

우리 협회는 2008년 6월 30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ACE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한-EU FTA에 대비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협의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해 10월 30일에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 미국건축사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약칭 AIA)의 2009년 총회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는 마빈 말레카(Marvin Malecha) AIA회장의 초청으로 최영집 회장, 한명수 고문, 신춘규 국제담당 이사, 이영수, 김성민 국제위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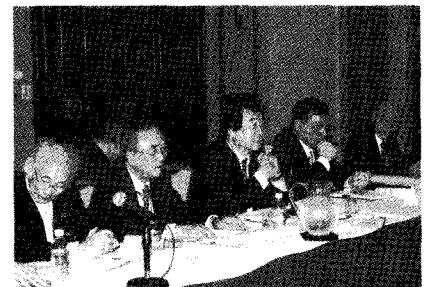
대표단은 미국 건축사계속교육을 참관하

고, UIA, ACE를 비롯하여 총 13개 지역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건축단체장 포럼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경제위기 속에서 건축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건축전문직의 국가 간 이동성 확보에 관하여 논의했다.

한편, AIA총회에서는 우리 협회의 한명수 고문이 2009년 AIA 프레지덴셜 메달을 수여받고 명예회원(HAIA)으로 위촉됐다.



ACE총회 중 국제건축단체장 공동세션에 참석중인 최영집 회장



AIA국제건축단체장포럼에서 발언중인 최영집 회장



ACE총회 중 회의장면



마빈 말레카 AIA회장과 함께